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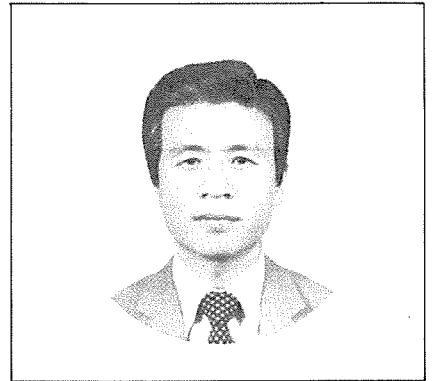
研究분위기 造成에 總力 경주할터

제품의 成能향상과 基盤技術축적에 힘써야

『우리나라의 고무工業은 70년이라는 오랜 歷史를 갖고 있으면서도 타工業분야에 비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技術수준이나 品質管理 면에서 國際 수준으로 인정 받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韓國고무學會 金駿洙회장 (三共物産(株) 전무이사)은 우리나라 고무기술제는 그동안 기반기술이 미흡한 상태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조차 부족해 연구개발보다는 기술 제휴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팽배했기 때문에 量的인 성장에 비해 質的인 면에서 이를 뒤따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한다.

고무신으로부터 출발하여 輸出立國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몫을 차지해온 우리나라 고무공업제는 신발류와 타이어공업이 국제수준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일정수준에 올라선 반면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특수 공업용 부품, 즉 중장비라든가 항공기, 우주산업 등에 쓰이는 특수부품은 수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經濟性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이 부진한 상태로 아직도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다.

『고무제품은 첨단 電子産業에서부터 自動車, 船舶, 항공기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하나로 그 종류가 수만종에 달하며 단일품목을 위시하여 각종 공업용 부품의 수요가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고무제품의 생산기술향상이 모든 공업제품에 直·間接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金회



◇金駿洙 회장

장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고무제품 중에서 상당량을 외국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제품의 수출량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어 고무제품 생산업체는 물론 관련 소재 산업분야에서도 제품의 성능향상 등 여러가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모든 산업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고무공업의 기술적인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제품의 성능향상은 물론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신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겠다고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무기술인 스스로 첨단과학 기술이 제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고무제품이나 부품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고 비행기가 날 수 없으며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뜰 수 없다는 긍지를 갖고 기술개발에 임하는 마음자세

가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우리 기술계에서 연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연구라 해서 반드시 거창해야 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자세, 이것이 곧 연구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거듭되다 보면 우수한 연구논문은 물론 위대한 發明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은 이같은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고무학회가 앞장서서 고무기술인은 물론 관련 기술자들간에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애로기술 해결 뿐만아니라 기술개발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연구기관이 없을 뿐더러 大學에 고무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무학을 강의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는 것이 고무학계가 처해있는 현실이라고 밝힌다.

金회장은 우리나라의 고무공장 분포로 봐서 전문기술인력의 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만큼 大學에서의 고무학과 개설 뿐만 아니라 관련학과에서의 고무학강좌 시간수를 늘려 나가는 한편 기업체도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다 많이 설립해 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분위기 조성이 선진공업국의 기술보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고무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립공업시험원에 고무연구실이 설치되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서는 81년에 <주> 錦湖에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곧이어 82년에 한국타이어제조<주>에서 역시 부설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도 근년들어 기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고무연구실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반가워한다.

金회장은 이와 함께 우리의 고무공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품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려는 국민들의 의식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위시하여 70여개국으로 한국제 타이어가 수출되어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도 무조건 외국산만을 찾는 소비자들의 사고방식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사실 우리 고무공업이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빨리 도입되었고 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학술적인 관심이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한국 고무학회가 20년이라는 연륜에 반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나름대로 고무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金회장의 고무공업의 역사에 비해 학문적인 발전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오늘의 고무공업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왔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회가 중심이 되어 관련 연구기관은 물론 생산업체의 종사자 모두가 고무기술의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진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한다.

『우리 학회는 회원 대다수가 산업체 종사자이기 때문에 산업체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産·學협동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첨단기술 및 최신정보 교류를 위해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고무기초기술강좌 등을 열어 고무기술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金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공업수준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고급고무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고무과학의 발전과 고무기술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權 光仁 記>